

## 차별화 전략, '멀티' 회사 실현

제관 뿐 아니라 금속인쇄, 고무 롤러 사업확대, 경쟁력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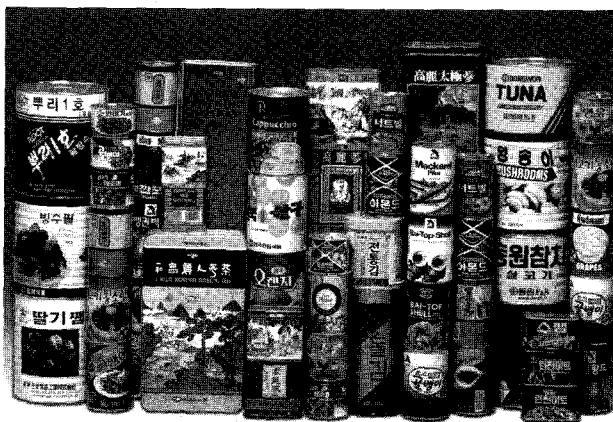
고 광 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멀티' 회사가 되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분야까지 섭렵, 타 경쟁사와 차별화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삼화실업(주)(대표이사 고광민)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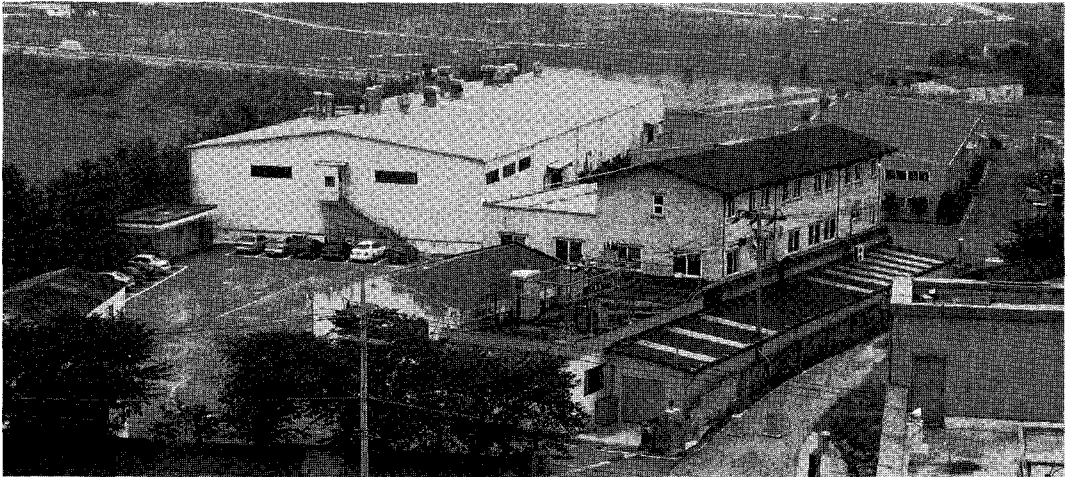
1973년 설립된 삼화실업(주)은 실링컴파운드의 제조를 시작으로 금속인쇄, 제관, 인쇄용 롤러의 제조와 판매에서 큰 성과를 보이며 국내 제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관부는 인쇄관, 신관, 음료관 등 금속용기를 생산하며 제조 공정상에서부터 완벽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무결점화' 함으로서 더욱 안전한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금속 인쇄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 삼화실업(주)의 생산제품



▲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삼화산업(주)의 공장전경

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깨끗한 외형의 용기를 인쇄하는데 큰 상승효과를 누리며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속인쇄의 고급화를 위해 일본 Techno roll사, 미국 Base-Line사, 독일 Westland사와의 기술제휴를 맺어 최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고무 롤러를 생산하고 있다.

삼화산업(주)은 금속인쇄와 인쇄용 롤러 사업까지 전문화를 이루며 제관용기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자사에서 완벽하게 이루며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는데 다른 타 제관 회사와 차별화를 지낸다.

삼화산업의 전문화된 효율적인 작업은 고광민 대표이사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0년간 제관업계에 근무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고광민 사장은 제관과 금속인쇄 공장을 경영하면서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금속인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또한 고 사장은 고급인쇄를 위해서는 고급 고무롤러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착안, 금속 인쇄기술에서만 큰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미국, 독일의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삼화산업은 동종업계에서 종이 인쇄, 철강인쇄 및 코팅업계에 고무롤러를 판매함으로써 공업용 고무롤러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가 되었다.

독일의 Westland사는 금속인쇄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서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기술제휴를 요청하고 있으나 쉽게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까다로운 Westland사가 2년전 삼화산업 공장을 방문하고 바로 기술제휴를 맺은 사실을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 Sam Hwa

하다.

고광민 사장의 제관에 대한 남다른 포부와 열정은 '인쇄 기술이론과 실제'라는 금속인쇄에 관한 책을 출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학에서 상학을 전공한 고 사장은 생소한 제관과 금속인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나갈 때마다 세계 각국의 인쇄기술 자료와 참고문헌을 수집해 연구하면서 인쇄관련 이론을 습득했다.

고 사장은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항상 인쇄기술에 대한 전문서적이 없어 고생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났었다"며 "실무가들에게 필요한 이론과 실무경험에서 나온 기술에 관한 안내책자가 있어 이론과 실무의 접목이 된다면 후배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책을 출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회사의 대표이사가

앞장서서 제관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에 삼화실업은 '멀티' 회사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삼화실업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공장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55여명의 직원들이 프로의식을 갖고 최고급 포장용기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관산업은 막대한 기술집약적 사업이며 장치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금속캔 분야에서 만큼은 프로가 되라"고 강조한다.

제관분야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전문 지식이 뛰어난 기술자들이 삼화실업에 많은 이유도 고 사장의 경영철학이 뒷받침한 것이다.

앞서가는 생각과 경영을 통

해 인쇄 선진국과의 정보교류 및 기술제휴에 아낌없는 투자와 친환경적인 인쇄용 보조 화학제품의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삼화실업 직원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그리고 국내의 기술이 총 집합한 삼화실업의 공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최고의 고품질 포장용기 생산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바빠 돌아가고 있다.

삼화실업에서 특히 자랑으로 내세우는 고무 롤러는 타 업체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을 만큼 우수하다.

제품을 소개하자면 미국의 Base-Line사와 일본의 Techno roll사, 독일의 Westland사와 각각 기술 제휴한 Ryno Ink 롤러, Hickey Picker 롤러, Inking Unit 등이 있다.



◀ 삼화실업(주)의 금속 인쇄 현장

각 롤러의 제품 특징으로는 Ryno Ink 롤러는 잉크의 점착과 퍼짐성이 양호하며 망점이 늘어나지 않고, 잉크의 전이가 빠르고 세척시 세척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며 Hickey Picker 롤러는 우수한 지분 및 딱지 제거 기능이 탁월하고 PS판의 수명을 연장해 주며 지분이나 딱지에 의한 크레임이 없어 안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경도 상에서 우수한 성질을 지닌 잉크 롤러인 Inking Unit는 부피와 경도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세척이 용이하고 장기간 성능 유지가 탁월하고 수명 연장이 높다.

이처럼 제품 하나하나 완벽을 기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삼화실업은 복지시설 또한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중 한 예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따로 마련해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고 사장은 “고품질 금속캔 용기와, 고급 고무 롤러 개발을 위해서는 직원들을 위한 최상의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의 직원들을 위한 배려는 이직율이 높은 제관업계에서 20~30년 동안 꾸준히 한길을 걸어올 수 있는 식구들을 만든 셈이다.

앞으로 삼화실업은 고유 브랜드를 출시하여 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고, 내부적으로 고객, 주주,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 지향을 추구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자부심을 갖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국내 제관시장 발전에 앞장 설 것이다.

전문화된 ‘멀티’ 회사로서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삼화실업. 삼화실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대하며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ko**

이한열 기자